

<주제강연>

변화와 그 계획 - 간호사업에 있어서의

전 산 초 박사

<연대간호학연구소소장>

오늘의 주제인 계획된 변화(Planned Change)란 말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좋은 번역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계획된 변화라고 해야 더욱 더 그 본연의 의미가 잘 나타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계획된 변화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획된 변화를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줄 것인지 연구할 것입니다.

다만, 내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여러분의 머리속에 계획된 변화의 개념적 형태를 그려드리며 동시에 왜 이러한 주제를 택하여야만 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Robert Oppenheimer는 그의 논설(1955년 미국잡지 "Perspective") "예술과 과학의 전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

은 새 세상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즉, 지식체제, 인간사회의 본연의 자세, 사회질서, 사상의 순서 등 사회나 문화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어 결국은 어제 또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새 것이라는 것은 과거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새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이 질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새 것이란 새 것의 보급, 그 변화의 척도와 범위 자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변화란 인간사회의 흔히 보는 현상임을 알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변화를 두가지 의미로 관점을 달리한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회변화란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진화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 변화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변화라는 힘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변화환경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William Draham Semner는 "사회변화는 서서히 일어나야 하며 인간사회의 관습의 변화는 법률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새 법은 관습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위해 길잡이로 새 법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며 유익한 방향으로 인간의 관습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하간 현대사회변화는 과거와는 다르다고 보

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 주제의 초점과 의의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변화의 이론가인 Moore는 “현대사회변화”의 일반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현대의 변동은 그 발생에 있어서 자연발생적인 것과 계획된 변동과의 두가지 근거를 갖고 있는데 오늘날의 변동은 계획이나 의식적인 세신의 부수적인 결과로서 일어나는 변동의 비중이 과거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자연발생적, 우연적, 무의식적인 사회변동은 대단히 흔한 것으로서 예를들면,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인해 외부의 문화나 유행이 부지불식간에 파급된다거나 경제성장이 사회적 이동을 증가시키거나 자동차와 도로의 발달이 도시의 생태학적 유형을 달리하게 하는 것 등이다.

계획된 사회변화의 예로는 경제성장계획을 세워 놓고 이에 따라 경제구조를 변경시키든지 또는 도시계획, 정치제도계획 등을 세워 집행하거나 가족계획을 세워 여성의 출발행위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계획된 변화가 더욱 빈번하다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즉, 관저에는 발명이나 문화 모방양식을 통해 인류의 문화가 시작한 이래 계획되지 않은 변화가 계속됐지만 현대사회의 변화과정에서는 생각깊은 계획된 변화(delicate, planned change)와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갖고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이나 사회의 어느 측면에서도 이러한 생각깊은 계획된 변화에 대하여 초연할 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같은 변화가 개인생활이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학문, 전문직업은 물론 모든 방면의 구조와 체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영향은 결국 모든 사회체제, 구조, 기능 또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동안에 걸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되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과정은 단순하게 쉽게 이행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옛 것의 칙해를 받아 여지없이 무너져 갈 때도 있으며 이 변화

가 새로운 것이 개발되어 바람직한 현상이라기 보다는 혼돈과 무질서한 기간이 오기도 하여 결함(gap)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모든 계획된 변화에 있어서도 이것이 있을 예측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꾸준한 저항력이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 여기서 말씀드려들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체제 속에서 이러한 계획된 변화의 과정이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 모든 체제가 똑같은 속도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회체제에서는 다른 어떠한 체제보다 더 빨리 변화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며 이 변화속도의 차이는 그 개체사회가 지닌 여러가지 여건이나 속성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즉, 개인주의나 자유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체제에 있어서는 과거와 관습을 존중하는 사회체제에서 보다 쉽게 사회변화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Arnold Dreen은 말하기를 모든 사회나 체제가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같은 사회와 체제 속에서 인간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호기심과 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 어느 한계내에서는 평형을 이루나 사람이란 본래 항상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보다 나은 행동방식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마는 것인가 봅니다.

간호도 역시 많은 사회체제 속에 하나의 체제이기에 사회전체 체제 속에서 기능하고 사회나 문화변화에 따라 간호체제가 갖는 기초기능과정이 끊임없이 변화, 수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간호체제에 수정이 연쇄적으로 타체제에 나아가서는 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간호체제 속에서는 크고 작은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간호원, 의사, 병원행정자, 보건행정자, 환자 또는 간호사업에 관심을 가진 자는, 오늘날 간호체제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전통적인 간호사업의 손실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역동적 변화는 인간의 요구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저해하는 증속적이고 침체적인 많은 모순된 점을 일소할 수 있는 필요불가결의 것으로서 바람직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가 많아졌습니다. 지금이 바로 좀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신있고 능력있는 간호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포괄적인 생각으로서 간호의 요구를 지니고 고민하는 인간들에게 보다 바람직한 전인간호를 주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를 할 수 있는 전인간호를 시행하고 평가 관리할 뿐만 아니라 회복, 예방 및 상담을 필요로 하나 실제로 이에 대한 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사회 대중에게 문제해결 요구의 상담자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하기에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간호원)도 있습니다.

간호의 기능이 차차 더 1) 기술적이며(technical) 2) 전문적으로 세분화되며(specialized) 3). 관료적(bureaucratic) 그리고 4). 관리적(managerial)인 면에 치우치게 되어가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 간호의 기능인 건강인이나 환자를 위한 간호와 치료(Care and Cure)체제에서 “표현적 기능”(Expressive function) 즉, “Bedside Psychologist”의 “T.L.C.=Tender Loving Care”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 본래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청받는 마당에서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분명히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의 한 사회체제인 간호체제가 변화를 겪고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변화가 과연 Moore가 지적한 바와 같은 현대사 회변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즉, 이 변화가 자연발생적, 우연적, 무의식적 또는 다른 체제에 있어 계획된 변화의 연쇄반응적 변화이나 또는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설정된 목표아래 수행된 계획된 변화이나, 간호체제 속에서는 이 두 가지 변화중 어느 것이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여, 간호원의 기술적 기능이 더욱 다양해지는 것은 기술문명의 부수적 변화일 뿐만 아니라 간호가 사회화하고 전문화함에 필요로된 계획된 변화나, 아니면 부

분적으로나마 단순히 의사에게 한하였던 기능이 간호원에게 이양돼 오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대의 전문직업으로서의 간호체제는 계획된 변화가 그 변화의 특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간호체제의 변화가 이런 계획된 변화를 기반으로 할때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라고해서 모두 발전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간호의 기술적 기능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관료적 및 관리적 기능면에서도 요청되며 더 나아가서는 간호의 “표현적 기능”(Expressive function) 자체에서도 전문적인 수준을 인정받을 수 있게 계획된 변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간호체제가 우리나라 사회 전체체제의 일체체로서 갖는 명확한 목적 설정이 있어야 하겠으며 임상간호, 간호교육, 간호행정 각 면에 있어서도 이 설정된 목적을 성취하도록 계획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학적인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여될 때 앞으로 간호는 전문 직업 및 학문은 다른 분야의 사회체제의 계획된 변화 또는 자연발생적 변동으로부터 파생된 부산물의 압력으로 목적없이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며 굵기야는 전문직업으로서의 통합을 이룰 수 없도록 질서를 잃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바람직한 건강 수준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건강습관을 가지도록 행위변화를 유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과학지식은 간호교육 내용의 필요불가결의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즉, 간호원에게는 변화를 계획하는 과정변화를 창조계획하고, 수행하고 이를 평가하며 연구유지하더라도 저항에 이겨내는 역동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간호에 있어서 사상적 및 학문적 정립이나 전문직업적 기능을 완수함에 있어서 계획된 변화는 어느 다른 사회체제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이론적 근거 및 과학적 방법을 응용함에 게울리 할 수 없음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